

올해 광주 20개 제조사업장 디지털전환 지원

시, 삼성전자와 광주사업장서 스마트공장 ‘킵오프’
전담인력 상주 혁신노하우 전수...6년간 461개 구축

광주시가 삼성전자와 연계해 지역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

광주시는 11일 광산구 하남산단에 위치한 삼성전자 광주제2캠퍼스에서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킵오프’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박종찬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 변대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선정 중소제조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스마트공장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로봇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생산·제조·제조를 자동·지능화하는 공장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전국 200여개 중소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광주 기업은 20곳이다.

삼성형 스마트공장 구축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삼성전자 전담인력이 6~10주간 기업에 상주하면서 제조혁신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삼성전자의 제조혁신 경험과 기술을 직접 전달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품질·생산성·물류 환경 등 각 분야별 개선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올해 선정된 20개사에 삼성전자와 함께 최대 8000만원(시비 50%·최대 5000만원, 삼성 30%·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 기업들은 이날 행사에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광주시는 11일 광산구 하남산단에 위치한 삼성전자 광주제2캠퍼스에서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킵오프’ 행사를 개최했다.

삼성전자 가진·금형 관련 스마트공장을 견학하며 자사 스마트공장 구축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광주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스마트공장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해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는 전담멘토단을 시범 운영한다.

또 스마트공장 인식과 활용도를 제고하

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제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선진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맞춤형 해결책 발굴을 위한 제조기업, 공급기업, 인공지능(AI) 기업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522억원(국비 429억, 시비 93억)을 투입해 461건(기초 274건,

고도화 187건)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기업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마트공장은 불가피하다”며 “대한민국이 스마트공장 강국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김성진 세방전지 본부장 ‘대통령상’ 수상

고용부 포상...청년 채용·안전 구축 등 공헌

김성진 세방전지(주) 본부장(사진)이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25년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1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고용노동부가 청년고용 촉진, 고용 안정 등에 선도적 역할을 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한다. 최근 2년간 일자리 창출, 일·생활 균형 실천, 노동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성과와 기여도를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세방전지(주) 광주공장은 연간 1800만대 이상의 자동차용 및 산업용 축전자를 제조하며 축전지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경제 여건 악화 속에서도 과감한 R&D투자와 내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매출 및 영업이익의 성장을 지속,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산업발전에 기여했다.



김성진 본부장은 세방전지(주)가 세계적인 연축전지 대표기업으로 성장·발전하는데 공헌했다. 최근

200여명 이상의 청년을 신규 채용, 청년 고용 확대와 조직 내 청년 인력 비중 제고에 힘썼다.

또 고졸·초대졸 인재 채용을 위해 지역 대학 및 특성화고와 연계한 맞춤형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절차와 채용 연계형 인턴십을 통해 우수 인재를 발굴하는 등 올바른 채용문화 정착에 노력했다. 아울러 안전한 일터 조성과 청년 근로자 맞춤형 디지털 전환 교육 및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경쟁력 강화지원, 정시퇴근 문화 정착 등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동반성장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양항, 제미나이 얼라이언스 기항지 확정

국내 유일...선박 15척 투입 유럽항 지중해 직항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이 국내 항만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제미나이 얼라이언스’의 유럽항 메인항로 기항지로 지정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중국 칭다오에서 출발한 컨테이너선이 광양항을 기항하게 된다. 운항 노선은 △중국 닝보 △말레이시아 △트위르케에 차나칼레·이지미트·알바

를리 △프랑스 사이드 제기함 △싱가포르 △창다오 △광양항 등 순으로 이어진다.

‘제미나이 얼라이언스’는 머스크(전 세계 선박량 14.1%)와 하파로이드(7.3%)가 결성한 세계 최대 규모 해운동맹이다. 지난 2월 아시아-유럽항 메인항로 7개를 신설했으나, 국내 항만은 포함되지 못해 그동안 서둘러선박만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번 광양항 기항 확정으로 국내 화주들은 말레이시아 타중팔레파스 등

해외 환적항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지중해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제미나이 얼라이언스는 1만3000TEU급 초대형 선박 15척을 투입해 운항한다. 광양항 기항이 확정되기까지 항만공사는 상하하와 싱가포르에 위치한 제미나이 운항본부를 직접 찾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고, 관계자를 초청하는 등 맞춤형 ‘핀셋 마케팅’을 전개한 끝에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유럽항 메인항로가 더해지면서 광양항은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환적항으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 광양=김재진 기자 kjkjin@

코스피 3344.20 마감...장중·종가 모두 최고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인 11일 개장하자마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코스피가 종가 기준 최고가까지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9.67p(0.90%) 오른 3344.20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세운 종가 기준 사상 최고 기록

(3314.53)을 하루 만에 새로 쓴 것이다.

지수는 22.07p(0.67%) 오른 3336.60으로 문을 연 직후 3,344.70까지 치솟으며,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3317.77) 역시 큰 폭으로 뛰어넘었다.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심리와 ‘셀

온’(sell-on·호재 속주가 하락) 현상으로 하방압력이 거세지면서 오전 10시 53분께 3311.86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이후 코스피는 종일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전날에 이어 이를 연속으로 장중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모두 갈아치우게 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76p(0.21%) 오른 834.76으로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한전KPS, 내부통제 이해 교육
전국 66개 총무부서장 대상

한전KPS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체계의 전사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전KPS는 지난 9월 5일 전국 66개 국내 사업소 총무부서장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의 이해’를 주제로 하는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감사원 사무차장 및 감사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문호승 사단법인 한국내부통제연구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실시한 이날 교육은 전국 사업소 이행부서 부서장의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전사에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문 원장은 강의에서 △공공부문 내부통제의 배경 및 필요성 △내부통제 주제별 역할분담 △지속가능한 내부통제를 위한 노력 등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부서장들은 강의를 통해 각 사업장별 위험요소 식별 방법과 상황별 내부통제 적용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며 기관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에 대해 격의 없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강의는 전국 이행부서 담당자들도 온라인 교육을 통해 연말까지 수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송홍 기자 photo25@

GICON, 소방관 이스포츠 대회
광산소방 우승...소통·화합의 장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최근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GES 위메이드 이스포츠(We Made eSports) 달랏라 소방관’ 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긴장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들을 응원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동료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총 7개의 관할 소방서 35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선수로 참가하고 100여명의 동료들이 함께했으며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아이템전으로 진행됐다. 치열한 점전 끝에 광산소방서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북부소방서가 준우승, 본부팀이 3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소방공무원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이스포츠의 긍정적인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기획하는 ‘위메이드 이스포츠’의 취지에 맞게 이번 대회가 소방공무원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축제 의 장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동행 지역상생공민

파인트리 요양원

☎ 062) 236-3816

광주 동구 남계길 23 (내남동)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 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치매, 노인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 그 외 65세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

■ 넓고 쾌적 최신식으로 신축 고급요양원

■ 축락의사(월2회), 외부강사(월18회)

■ 상차림 및 행사 (생신 및 어버이날, 명절 등)

■ 맞춤형 전문케어(배변, 목욕, 식사, 재활, 물리치료, 생활, 요양보호사21명)

■ 물리치료 기기 다수 다양, 편리하게 이용

■ 넓은 공동공간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아침체조 (매일)

간호사 케어

신축 고급 실내 (물리치료)